

일개 광역시민의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요

김애란^{1,2}, 이상훈³, 이무식^{4*}

¹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²한국한의학연구원 기술관리원, ³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⁴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Needs for Community Health Promotion Courses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mong One Metropolitan Citizens

Ae-Ran Kim^{1,2}, Sang-Hun Lee³, Moo-Sik Lee^{4*}

¹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²Clerk,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³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⁴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일개 광역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개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도구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의약 치료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의 56.8%가 한의약 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74.6%가 한의원을 이용하였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48.2%), 치료방법으로는 침치료(34.8%)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한의약 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응답률은 72.3%였으며, 응답자의 90.9%가 다른 사람에게 한의약 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81.2%가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강좌 시행에 적합한 장소로는 의료기관(22.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강좌 참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강좌의 주제 및 내용’(59.1%)을 수강 희망 주제 질환으로는 순환기질환(23.7%)을 우선으로 선택하였으며, 강좌를 통해 기대하는 사항으로는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방법’(69.0%)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요구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치료경험, 인식, 수요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500 citizens of one metropolitan city to prepare foundational data for the opening of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questionnaire examined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with and awareness of oriental treatment and a survey on the need for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ere used as the research tools. Results showed that 56.8% of respondents had an experience with oriental treatment over the last year. Participants who responded that oriental treatment was effective accounted for 72.3%. Respondents selected "subject and contents of class" (59.1%) as the important factor in attending the oriental health promotion cour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23.7%) as the disease they wanted to learn about. They considered "self-health care method for diseases" (69.0%) as what they expected most from the cla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when planning health promotion cour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satisfy the participants' needs.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course, Treatment experience, Awareness, Need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Oriental Medicine Citizen Public Health System" project (G12050) of the Daejeon TechnoPark.

*Corresponding Author : Moo-Sik Lee (mslee@konyang.ac.kr)

Received January 04, 2019

Revised March 08,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1]. 2012년 기준 보건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를 운영하는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206개소, 기공체조 교실, 중풍 예방교육, 한의학 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의학 육아교실 등과 같은 필수 프로그램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는 85개소에 이른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한의학계가 처해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영역이며[2], 특히 한의학의 입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건강증진 기법들을 프로그램화하여 보건사업화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각 학회와 연구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3]. 또한, 지역사회주민의 한의학 의료에 대한 의식행태 수준 관련 자료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제도화와 수행에 기초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하다[4]. 그리고 무엇보다 한의약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질환 양상이나 진료방법, 이용에 대한 만족수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후속 조치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4-14]은 주로 한의학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한의학 의료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한의학 보험 부분과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특성화된 한의학 공공사업의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의학 의료 이용자의 수요와 이를 토대로 한 한의학적인 건강증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 또는 기획하는 심층적인 연구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를 개설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그 수요와 관련하여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방법 및 대상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일개 광역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대학교, 기업체 등 기관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체 개발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직접 설문 작성이 어려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대상자의 경우 연구자가 1대 1로 대면하여 직접 읽어주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배부된 500부의 설문 중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484부(응답률 96.8%)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설문지 구성)

설문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유무, 지역, 월소득, 건강보험, 건강상태), 한의학 치료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1문항(6개 하위문항 별도),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 8문항(2개 하위문항 별도)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version 18.0)을 이용하여, 총 48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각 문항(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의학 치료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보건소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요 현황)에 대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각 응답범주별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이 286명(59.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152명(31.5%), 31-49세가 123명(25.5%), 50-69세가 124명(25.7%), 70세 이상이 83명(17.2%)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219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78명(36.8%)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무직(학생, 주부 포함)이 267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전문직, 공무원 포함) 163명(33.7%), 기타 30명(6.2%), 자영업 24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58명(53.3%), 미혼(이혼, 사별, 별거 포함)이 226명(46.7%)이었고, 거주

지역은 동부가 273명(56.4%), 서부가 211명(43.6%)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이 157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원 미만이 138명(28.5%)이었고, 건강보험의 종류는 직장건강보험이 303명(62.6%), 지역건강보험이 150명(31.0%)이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에서는 ‘(매우)건강하다’가 262명(54.1%), ‘보통이다’가 169명(34.9%)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N(%)
Gender	Male	198(40.9)
	Female	286(59.1)
Age (years)	≤30	152(31.5)
	31-49	123(25.5)
	50-69	124(25.7)
	≥70	83(17.2)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87(18.0)
	High school	178(36.8)
	≥ College	219(45.2)
Occupation	Company worker	163(33.7)
	Owner-operator	24(5.0)
	Unemployed	267(55.2)
	Others	30(6.2)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226(46.7)
Residential district	Eastern(Low socio-economic condition)	273(56.4)
	Western(High socio-economic condition)	211(43.6)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KRW)	< 1million	116(24.0)
	1million - 3million	157(32.4)
	3million - 5million	138(28.5)
	≥ 5million	73(15.1)
Type of social security	Residence-based insurance	150(31.0)
	Workers-based insurance	303(62.6)
	Medicaid	31(6.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62(54.1)
	Average	169(34.9)
	bad	53(11.0)

또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한의약치료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P<0.05$). Table 2

Table 2. Experience of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Experiences on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No	P-value
Gender	Male	94 (47.5)	104 (52.5)	0.001
	Female	181 (63.3)	105 (36.7)	
Age(years)	≤30	52 (34.2)	100 (65.8)	0.000
	31-49	66 (53.7)	57 (46.3)	
	50-69	93 (75.0)	31 (25.0)	
	≥70	63 (75.9)	20 (24.1)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63 (72.4)	24 (27.6)	0.002
	High school	89 (50.0)	89 (50.0)	
	≥ College	123 (56.2)	96 (43.8)	
Occupation	Company worker	83 (50.9)	80 (49.1)	0.214
	Owner-operator	13 (54.2)	11 (45.8)	
	Unemployed	163 (61.0)	104 (39.0)	
	Others	16 (53.3)	14 (46.7)	
	Residential district	Eastern(Low socio-economic condition)	158 (57.9)	
	Western(High socio-economic condition)	117 (55.5)	94 (44.5)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KRW)	< 1million	78 (67.2)	38 (32.8)	0.022
	1million - 3million	92 (58.6)	65 (41.4)	
	3million - 5million	68 (49.3)	70 (50.7)	
	≥ 5million	37 (56.8)	36 (49.3)	

3.2 한의약 치료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지난 1년간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 포함)의 한의약 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경험이 있다’ 275명(56.8%), ‘경험이 없다’는 209명(43.2%)으로 나타났다. 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주로 이용한 곳은 한의원이 205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52명(18.9%), 보건소 18명(6.5%)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질환에 대한 중복응답을 허용 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용자가 170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질환이 45명(1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질환에 대한 이용 분야로는 다이어트나 비만치료, 보약, 부중, 어지럼증, 안면마비, 피부과질환, 비뇨기과 질환 등의 응답을 보였다. 또 지난 1년간 이용경험 횟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0회 미만이 205명(75.1%)으로 가장 많았고, 11-30회 미만이 56명(20.5%)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경험한 한의약 치료의 경우 침이 254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뜸과 한의약 물리치료가 각각 128명(17.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약 치료에 대한 효과는 '매우 좋음' 90명(32.7%), '약간 좋음' 109명(39.6%), '보통' 71명(25.8%), '효과없음' 이 5명(1.8%)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치료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추천할 의향이 있다'가 249명(90.9%)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3

Table 3. Experiences and awareness about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Study variables		N(%)
Experiences on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275(56.8)
	No	209(43.2)
Utilized medical facility	Oriental medicine clinic	205(74.6)
	Oriental medicine hospital	52(18.9)
	Public health center	18(6.5)
Category of diseases	Musculoskeletal diseases	170(48.2)
	Digestive diseases	45(12.7)
	Respiratory disease	42(11.9)
	Circulatory disease	39(11.0)
	Cerebrovascular disease	11(3.1)
	Endocrine disease	10(2.8)
	Gynecological disease	7(2.0)
	Cancer and other incurable diseases	6(1.7)
	Psychiatric disease	3(0.8)
	Others	20(5.7)
Visit frequency per year(number)	<10	205(75.1)
	11 - 30	56(20.5)
	≥31	12(4.4)
Type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Acupuncture	254(34.8)
	Moxibustion	128(17.5)
	Oriental physical therapy	128(17.5)
	Oriental herbal medicine (decoction/tablet)	109(14.9)
	Cupping	101(13.8)
	Herbal extracts	8(1.1)
	Others	2(0.3)
Satisfaction on the effect of treatment	Very good	90(32.7)
	Good	109(39.6)
	Average	71(25.8)
	No effect	5(1.8)
Willingness to recommend oriental medical services	Yes	249(90.9)
	No	25(9.1)

3.3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요 현황

이전에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강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가 82명(16.9%), '경험이 없다'가 402명(83.1%)으로 아직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가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수강 경험자의 경우 수강 실시기관은 의료기관이 27명(34.2%), (노인)복지관 20명(25.3%)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에 대한 응답으로는 의료기관 109명(22.5%), 문화센터 또는 평생교육원 107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응답자는 20명(4.1%)으로 대기업이나 기관, 학교 등을 선택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증진 강좌의 시행기관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강좌의 주제 및 내용'이 286명(59.1%),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 진행기술'이 146명(30.2%)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할 경우 참여 의향에 관한 응답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393명(81.2%)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 91명(18.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시간부족 32명(43.2%), 강의수강 불필요 19명(25.7%), 관심부족 9명(12.1%), 접근성의 어려움 및 효과/근거, 전문성 부족이 각각 5명(6.8%), 기타 4명(5.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히 시간부족을 강좌 불참의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향후 동영상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수요자용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에 관한 문항에서는 토요일 오전(94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토요일 오후(88명)를 선택하여 토요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1일 강좌의 적절한 교육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30~60분 미만이 275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60~90분 미만이 160명(33.1%)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방법'이 334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이 79명(16.3%)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Needs for health courses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udy variables		N(%)
Experience on oriental medical of health courses	Yes	82(16.9)
	No	402(83.1)
Type of educational institute	Medical facilities	27(34.2)
	Welfare center	20(25.3)
	Public health center	17(21.5)
	Cultural center/lifelong learning center	9(11.4)
	Community outreach center	3(3.8)
	Others	3(3.8)
Venue type of courses	Medical institution	109(22.5)
	Cultural center /lifelong learning center	107(22.1)
	Public health center	93(19.2)
	Welfare center	78(16.1)
	Community outreach center	71(14.7)
	Religious organizations	6(1.2)
	Others	20(4.1)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participation of the courses	Lecture topics and content	286(59.1)
	Expertise and teaching skills of instructors	146(30.2)
	Course time	27(5.6)
	Name value of the course provider	22(4.5)
	Teaching facilities	2(0.4)
	Non-response	1(0.2)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s	Yes	393(81.2)
	No	91(18.8)
Appropriate time of a session (min)	< 30	43(8.9)
	≥30 - <60	275(56.8)
	≥60 - <90	160(33.1)
	≥90	6(1.2)
Expectation on the topic of the courses	Get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disease	79(16.3)
	How to self-health care for diseases	334(69.0)
	Expected changes in health behaviors	47(9.7)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staff, medical technology, information on the acquisition	24(5.0)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에 참여할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질환에 대한 응답별 순위는 순환기질환이 125명(23.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109명(20.6%), 소화기질환 87명(16.4%), 호흡기질환 72명(13.6%), 뇌혈관질환 38명(7.0%), 내분비질환 37명(7.0%), 부인과질환 27명(5.1%), 암 등 난치성질환 21명(4.0%), 기타질환 8명(1.5%), 정신과질환 5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수강 희망 질환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가구 월평균 소득, 건강보험 종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05$). 특히 남자는 순환기질환, 여자는 근골격계질환,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소화기질환을, 31~49세와 50~69세는 순환기질환을, 70세 이상은 근골격계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근골격계질환, 고졸과 대졸이상은 순환기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이 순환기질환을, 기타의 직업군에서는 호흡기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자영업자는 순환기 및 근골격계질환을 동일하게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Table 5

4. 고찰

이 연구는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 및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통해 향후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건강증진은 건강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교육, 환경개선, 입법,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건강증진의 초점은 개인, 집단, 크게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15]. 양방 치료와 더불어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는 전문가인 한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그에 대한 한의학적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학 치료를 통해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사료되나, 대부분 단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한의학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 조사에 앞서 기본적인 한의학 치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지난 1년간의 한의학 치료 경험을 조사하였다. 한의학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6.8%로 일반 국민들의 60% 가량이 한의학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연구[16]나, 한의학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72.3%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70%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편으로 조사된 연구[17]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의학 치료의 경험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과 50대 이상의 연령층, 학생과 주부를 포함한 무직, 3백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에서 한의학 치료의

Table 5. Category of diseases required as contents of the cours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tudy variables		Category of diseases										Total	P-value
		Circulatory	Digestive	Respiratory	Endocrine	Musculo-skeletal	Neurological	Gynecological	Cerebrovascular	Psychiatric	Cancer and other incurable		
Age(years)	≤30	28 (22.8)	37 (42.5)	36 (50.0)	10 (27.0)	23 (21.1)	11 (40.7)	4 (10.5)	3 (60.0)	9 (42.9)	5 (62.5)	166	0.000
	31-49	29 (23.6)	27 (31.0)	26 (36.1)	9 (24.3)	20 (18.3)	9 (33.3)	6 (15.8)	0 (0.0)	4 (19.0)	0 (0.0)	130	
	50-69	38 (30.9)	13 (14.9)	9 (12.5)	8 (21.6)	35 (32.1)	7 (25.9)	15 (39.5)	1 (20.0)	6 (28.6)	1 (12.5)	133	
	≥70	28 (22.8)	10 (11.5)	1 (1.4)	10 (27.0)	31 (28.4)	0 (0.0)	13 (34.2)	1 (20.0)	2 (9.5)	2 (25.0)	98	
Total		123	87	72	37	109	27	38	5	21	8	527	
Gender	Male	60 (48.0)	34 (39.1)	34 (47.2)	12 (32.4)	38 (34.9)	1 (3.7)	19 (50.0)	4 (80.0)	10 (47.6)	4 (50.0)	216	0.001
	Female	65 (52.0)	53 (60.9)	38 (52.8)	25 (67.6)	71 (65.1)	26 (96.3)	19 (50.0)	1 (20.0)	11 (52.4)	4 (50.0)	313	
Educational attainment	≤Middle school	30 (24.0)	6 (6.9)	4 (5.6)	6 (16.2)	36 (33.0)	2 (7.4)	9 (23.7)	0 (0.0)	1 (4.8)	1 (12.5)	95	0.000
	High school	43 (34.4)	37 (42.5)	28 (38.9)	14 (37.8)	31 (28.4)	11 (40.7)	14 (36.8)	4 (80.0)	15 (71.4)	2 (25.0)	199	
	≥ College	52 (41.6)	44 (50.6)	40 (55.6)	17 (45.9)	42 (38.5)	14 (51.9)	15 (39.5)	1 (20.0)	5 (23.8)	5 (62.5)	235	
Occupation	Company worker	40 (32.0)	37 (42.5)	26 (36.1)	11 (29.7)	27 (24.8)	16 (59.3)	7 (18.4)	1 (20.0)	5 (23.8)	3 (37.5)	173	0.048
	Owner-operator	7 (5.6)	3 (3.4)	2 (2.8)	2 (5.4)	7 (6.4)	1 (3.7)	1 (2.6)	0 (0.0)	1 (4.8)	0 (0.0)	24	
	Unemployed	75 (60.0)	41 (47.1)	34 (47.2)	22 (59.5)	69 (63.3)	9 (33.3)	28 (73.7)	3 (60.0)	13 (61.9)	5 (62.5)	299	
	Others	3 (2.4)	6 (6.9)	10 (13.9)	2 (5.4)	6 (5.5)	1 (3.7)	2 (5.3)	1 (20.0)	2 (9.5)	0 (0.0)	33	
Marital status	Married	77 (61.6)	37 (42.5)	26 (36.1)	21 (56.8)	60 (55.0)	14 (51.9)	29 (76.3)	1 (20.0)	10 (47.6)	3 (37.5)	278	0.000
	Not married	48 (38.4)	50 (57.5)	46 (63.9)	16 (43.2)	49 (45.0)	13 (48.1)	9 (23.7)	4 (80.0)	11 (52.4)	5 (62.5)	251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month (KRW)	< 1million	42 (33.6)	13 (14.9)	10 (13.9)	10 (27.0)	35 (32.1)	2 (7.4)	14 (36.8)	0 (0.0)	5 (23.8)	2 (25.0)	133	0.004
	1million - 3million	32 (25.6)	39 (44.8)	22 (30.6)	15 (40.5)	34 (31.2)	9 (33.3)	11 (28.9)	3 (60.0)	7 (33.3)	2 (25.0)	174	
	3million - 5million	32 (25.6)	28 (32.2)	24 (33.3)	7 (18.9)	22 (20.2)	10 (37.0)	11 (28.9)	2 (40.0)	7 (33.3)	3 (37.5)	146	
	≥ 5million	19 (15.2)	7 (8.0)	16 (22.2)	5 (13.5)	18 (16.5)	6 (22.2)	2 (5.3)	0 (0.0)	2 (9.5)	1 (12.5)	76	
Type of social security	Residence-based insurance	44 (35.2)	23 (26.4)	26 (36.1)	13 (35.1)	30 (27.5)	6 (22.2)	14 (36.8)	1 (20.0)	6 (28.6)	1 (12.5)	164	0.011
	Workers-based insurance	70 (56.0)	60 (69.0)	45 (62.5)	21 (56.8)	66 (60.6)	21 (77.8)	21 (55.3)	3 (60.0)	10 (47.6)	7 (87.5)	324	
	Medicaid	11 (8.8)	4 (4.6)	1 (1.4)	3 (8.1)	13 (11.9)	0 (0.0)	3 (7.9)	1 (20.0)	5 (23.8)	0 (0.0)	41	
Total		125	87	72	37	109	27	38	5	21	8	529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한의약 치료 경험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의약 치료 경험이 많았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10-12,18-22]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가

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용 질환은 근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기존의 연구 [4,12,23-25] 결과와 비슷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3.1%가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참여 의사는 90.9%로 높게 나타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시간 및 관심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 효과 및 근거/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고, 강좌 참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강좌의 주제 및 내용'이며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기대효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양방과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26].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심 있는 주제의 수요 파악 및 선정,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한 강좌 시행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답자들은 건강증진 강좌 실시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가적인 역할까지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참여시 순환기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이는 근골격계 및 일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방 의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서 등[11]의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이나 순환기계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17],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자 중 48.5%가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보고한 연구[27], 당뇨의 다빈도 처방 질환 및 보험 적용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질환이 근골격계 질환(53.5%)이라는 보고[28]와 마찬가지로 다빈도 질환일수록 이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질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 따른 수강 희망 질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맞춤형 한의약 강좌를 개설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강좌 제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진행' 항목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된 연구[29]나 한

의약건강증진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주민 교육을 위한 사전 교안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30]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수요자 및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대상자의 응답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설문 문항을 간단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를 수강하는 이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심도 깊은 질문을 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전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강 경로 및 수강 횟수, 강의 주제 혹은 관련 질환, 강의를 통해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원하는 강의 스타일, 강의 자료 배포 유무나 배포 형태 등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나 희망 행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지 못하였다. 향후 수요를 기획하는 연구 수행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보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연구는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개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한의약 치료에 대한 경험 및 치료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한의약 치료의 경험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3.1%가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수강 경험이 없었으나,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참여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나 강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문가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한의약 관련 강좌가 적극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참여시 순환기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질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의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점진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 방안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가 강좌 참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으로는 ‘강좌의 주제 및 내용’을 기대효과로는 ‘질환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응답하였는데,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심 있는 주제의 수요 파악 및 선정,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법에 대한 강좌 시행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관심 질환의 선정, 진료를 통한 수동적 관리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능동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강좌 구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ealthcare Program for Public Health information*.
- [2] C. B. Jeong. (2010).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Oriental Medical Health Promotion Program*.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 E. K. Lee, M. S. Chong, K. N. Lee. (2011). Considerations on a support system for Oriental medicine public health programs.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5(3), 1-16.
- [4] H. S. Suh, C. H. Nam, J. D. Kim, S. J. Kim, J. G. Ryu, B. C. Jun, M. A. Kim. (2007). Trends in the Use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and Treatment Satisfaction.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1(2), 41-70.
- [5] S. H. Sok, K. B. Kim. (2006). A Study of the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of Patients and Family in an Oriental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2(1), 68-77.
- [6] B. K. Lee. (2007).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degree of users of oriental medical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 Centering around Daegu metropolitan city*.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7] H. W. Lee, M. S. Chong, K. N. Lee. (2007). A Study on the Patient's Attitude of Korean Medicine by Social Classes.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1(2), 71-86.
- [8] Y. J. Seo, S. H. Kang, Y. H. Kim, D. B. Choi, H. K. Shin. (2010). Customers'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in Oriental Medical Clinics.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31(2), 124-136.
- [9] J. W. Lee, K. J. Suk, B. I. Seo. (2012). A Study on Satisfaction level with Herbal Public Health Services and its Improvement Plans.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18(2), 65-89.
- [10] H. T. Shin, S. D. Lee, C. S. Chu, S. B. Han, Y. J. Han, H. M. Park. (2007).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8 Principle TKM Public Health Services in Rural Areas of Korea.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1(1), 23-34.
- [11] Y. J. Seo, S. H. Kang, Y. H. Kim, D. B. Choi, H. K. Shin. (2010). Systematic Review on the Customers' Use of and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Journal of Korean Medicine*, 31(1), 69-80.
- [12] K. J. Yun. (2012). Koreans' Utilization and Awareness about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ue & Focus*, 140, 1-8.
- [13] J. W. Lee, C. T. Kim, H. W. Lee. (2015). Comparative study on the Satisfaction difference of Korean and Western Medical Services.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9(3), 67-75.
- [14] S. K. Seo, B. H. Park, S. J. Choi. (2016). A Study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ult User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1), 136-148.
- [15] M. B. Dignan, P. A. Carr. (1993). *Program Planning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16] Y. C. Kim. (2008). *Citizen demand survey on Oriental medical services status and R&D*.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17] J. G. Jo. (2004). An Analysis of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the Opening of Oriental Medicine Market. *Health-welfare Policy Forum*, 98, 76-93.
- [18] J. S. Oh, D. W. Han, M. H. Im, Y. S. Hong, Y. H. Lee, H. I. Noh. (2009). The Us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its Affecting Factor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in Jeju Province, Korea.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3(3), 55-71.
- [19] K. S. Kim, J. T. Um, J. M. An, S. H. Kim, M. Y. Choi, B. S. Kim. (2010). A Study on the Customer's Use of and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by local resident. *Journal of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1), 143-151.
- [20] J. E. Park, S. M. Kwon. (2011).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Medicine, 32(1), 97-108.

- [21] H. J. Lee, W. S. Yoo, S. K. Chung. (2011). Determining Factors for the Use of Oriental Healthcare Services for Survey Subjects with Chronic Illnesses :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5(3), 115-125.
- [22] J. H. Lim, S. M. Lim. (2012). A literature study about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16(2), 11-22.
- [23] G. C. Kim, S. W. Park, K. H. Song, J. Y. Park, S. M. Hong, H. W. Lee. (2010). Clinical Demands for Evidence-based Medical Interventions and Diagnostic Technology in Oriental Medicine.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14(2), 121-133.
- [24] Y. C. Kwon, W. K. Yoo, B. I. Seo.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escribed Drugs in Ori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ir Improvement.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7(2), 1-16.
- [25] A. D. Sung, H. M. Park, H. D. Kim, S. D. Lee. (2017). The Patterns of Korean Medicine Usage with Coverage by Private Health Insurance -Based on Usage and Consumption of Korean Medicine Report in 2014-*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1(1), 67-81.
- [26] S. J. Moon. (2017). Analysis of Intention to Utilize Oriental Medical Services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2(3), 21-43.
- [27] H. S. Jo, S. H. Lee, E. Y. Choi, K. S. Choi, Y. M. Chae. (2002). Market Segmentation of Patient-Utilization in Oriental Medical Care and Western Medical Care. *Health Policy and Mangemnet*, 12(1), 125-143.
- [28] A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Consumption of Oriental Medicine in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 [29] J. S. Park, S. B. Jang, J. A. Lee, H. Y. Ko, S. J. Park. (2017). A National-wide Survey of Public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argeted on Public Officials.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1(2), 61-68.
- [30] S. M. Jin, S. j. Park. (2017). Exploring the roles of Korean public health doctor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project.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1(3), 11-18.

김 애 란(Kim, Ae Ran)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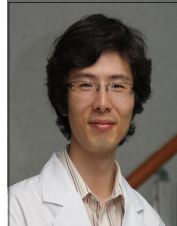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5년 6월 ~ 현재 :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술관리원

- 관심분야 : 한의학, 보건학
- E-Mail : arkim@kiom.re.kr

이 상 훈(Lee, Sang Hun)

[정회원]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 석사
- 2011년 2월 : 원광대학교 한의학 박사
- 2009년 ~ 2012년 2월 :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 2012년 12월 ~ 2018년 12월 :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 2019년 1월 ~ 현재 :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한의학, 보건학, 생명공학
- E-Mail : ezhani@kiom.re.kr

이 무 식(Lee, Moo Sik)

[정회원]



- 1999년 2월: 계명대학교 의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2008년 10월 ~ 2011년 7월 : 건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장
- 2011년 8월 ~ 2012년 7월 : 미국 메이요클리닉 교환교수

- 2013년 4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 201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2015년 3월 ~ 현재 : 오스트리아 다뉴브대학교 명예교수(ehrenprofessor)
- 관심분야 :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예방의학, 직업 환경 의학, 병원관리
- E-Mail : mslee@konyang.ac.kr